

가계경제 악화 생명보험 해지 5년새 54% '급증'

“시중금리 상승 시 보험계약 해지 증가해”

경기침체와 가계경제의 악화 등으로 최근 5년새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해지 건수는 총 69만9천314건으로 2011년(42만7천775건)보다 54.1% 증가했다.

자발적 해지가 43만9천812건으로 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비자발적 해지(22만1천336건)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생보협회는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계약해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시중금리 상승 시 생명보험 계약해지도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금리 상승은 대출이자 부담을 늘리고 가계경제를 악화시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향후 국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발적·비자발적 보험계약 해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보협회는 우려했다.

협회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

한 보험료에 비해 크게 적을 수 있어 보험가입은 신중히 결정하며 한번 가입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율러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소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비흡연 할인, 체격조건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최대 37%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할인(0.5~1.0%), 부모님 건강을 챙기는 효도할인(1.5~2.0%) 등도 있다.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설 기능',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완납 제도' 등도 있다.

호남 제조업체 내년 수출 증가 예상 '조선은 암울'

호남권 제조업체 절반 가량이 2018년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제조업 수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호남권 제조업체 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2.5%가 수출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17.5%이며, 나머지 30.0%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 IT와 석유화학·정제의 경우 수출 증가 예상 업체 비중이 각각 60.0%와 50.0%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응답 업체의 절반이 증가를 예상한 반면 25.0%가 '10% 초과 감소'를 전망했다. 조선업은 수출 감소 예상 업체가 66.7%에 달했으며, 모두 3% 초과 감소로 응답했다.

수출 증가를 전망한 업체들은 그 요인으로 '신시장 개척 노력(22.2%)', '품질 경쟁력 향상(19.0%)',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개선(19.0%)' 등을 언급했다.

조선업은 수출 감소 원인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50.0%)',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25.0%)', '가격 경쟁력 약화(25.0%)' 등을 제시했다.

2018년 수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72.5%)', '국내 경제 불확실성(60.0%)'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목포수협은 지난 21일 위판액 1600억원(어획량 3만3000여)을 기록, 그 동안 최고 위판액이었던 2013년 1549억원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위판하는 모습.

목포수협 위판고 1600억 '역대 최고'

4년만에 경신...갈치 어획량 증가·외지 대형 트롤어선 유치

목포수협의 위판액이 1600억원을 초과하면서 종전 최고기록 1500억원을 갈아치우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목포수협은 지난 21일 위판액 1600억원(어획량 3만3000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60억원(어획량 2만6700여)에 비해 27%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2013년 1549억원을 4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목포수협의 위판 물량은 올 상반기 1만4081t으로 전년 동기 1만1천에 비해 40% 늘어나면서 그 동안 주춤하던 위판액의 고공행진을 예고했다.

목포수협은 이같은 성과는 갈치 어획량 증가와 외지 대형 트롤어선 유치 등의 효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1억원에 그쳤던 목포수협의 갈치 위판고는 올 244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또 외지 트롤어선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위판도 지난해 1억4000만원에 머물렀으나 올 해에는 6100수치 상승한 7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목포수협의 주 종목인 참조기도 지난해 333억원에서 올해 390억원으로 소폭 올랐으며, 활어와 새우젓, 물김 등의 위판 실적도 상승세를 보였다.



광주신세계, '골목골목' 감기에 좋은 고폘찰차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만도) 겨울철, 기온이 하강하면서 주위에 감기 환자가 많다.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차 코너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고폘찰차를 판매하고 있다. 기침을 가라앉히는 도라지와 비타민과 구연산이 풍부한 모과, 몸에 열을 내는 생강이 어우러져 향뿐 아니라 건강도 고려한 웰빙 차다. 또 100% 천연 생분해 필름(PLA)을 사용한 친환경 티백으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김 수출, 사상 첫 5억 달러 돌파...“전세계 109개국 수출”

해외서 감자칩·팝콘 대체 저칼로리 건강 스낵 인기

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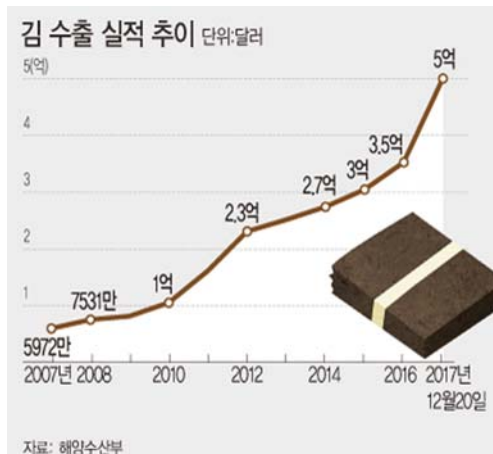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5억 달러(약 5391억원)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수출 5억 달러는 수출 물량 기준으로도 2만 톤을 돌파함으로써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과거 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밥반찬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 해외에서 감자칩, 팝콘 등을 대체하는 저칼로리 건강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6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억 달러(2012년)와 3억 달러(2015년)를 빠른 속도로 돌파했으며, 올해 5억 달러까지 달성하며 우리나라 대표 수출식품으로 부상했다.

국가별 김 수출 동향을 보면, 수출 1위국인 일본(1억1300만 달러, 48.0%↑)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8700만 달러, 30.5%↑)이 미국(8400만 달러, 23.1%↑)을 제치고 수출 2위국으로 도약했다. 러시아(1600만 달러, 27.5%↑)와 독일(700만 달러, 17.4.5%↑)로의 수출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수출국기도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며 2007년 49개국에서 올해 109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앞서 해수부는 김을 2024년까지 수출 10억 달러(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아래 지난 9월 김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16개 주요 수출국에서 우리 수산식품 판촉행사인 케이씨푸드 세계 주간(K?SEAFOOD Global Week)을 진행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7월에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아시아 규격으로 채택되는 등 한국 김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올해 수출 성장세에 이어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1조 원)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김 신종종 개발·보급 ▲마른김 등급제 도입 ▲김맥(김+맥주·주류)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김은 생산·가공·유통 등 산업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뤄져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대부분 국내에 귀속되므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며 "김 산업 발전방안 수립 첫해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 흐름을 이어 2024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